

**Journal of Korean American  
Ministries & Theology**

No. 4  
2011

**Korean Preachers & Worship Leaders**

Columbia Theological Seminary  
[www.webkam.org/journal](http://www.webkam.org/journal)

한미목회연구소  
다리놓는사람들  
*Building bridges  
in all communities*



**KOREAN  
AMERICAN  
MINISTRIES**

WWW.WebKAM.org

**COLUMBIA  
THEOLOGICAL  
SEMINARY**

*Journal of Korean American  
Ministries & Theology*

Number 4  
2011

**Korean Preachers &  
Worship Leaders**

**Editor and Publisher**

Paul Junggap Huh, Ph. D.  
Columbia Theological Seminary  
Decatur, Georgia

**Editorial Associate**

Daniel Adams  
Decatur, Georgia

**Advisory Board**

Korean-American Professors in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  
(ATS)

For any questions, subscription, and  
articles please contact:

Tel. 404-687-4538

E-mail: [huhp@ctsnet.edu](mailto:huhp@ctsnet.edu)

Copyright©2011

All rights reserved. No part of this  
journal may be reproduced in any form  
without written permission from the  
publisher, Korean American Ministries  
at Columbia Theological Seminary.

**COLUMBIA THEOLOGICAL SEMINARY**

Korean American Ministries

701 S. Columbia Dr.

P.O. Box 520

Decatur, Georgia 30031

[www.webkam.org](http://www.webkam.org)

## Sun-Ju Khil 길선주 1896-1935

Hee Chang Kang

### Abstract

Rev. Sun-Ju Khil was the church leader of the Pyung-Yang great revival in 1907. He was a great preacher and passionate pastor. He was born on March 15, 1896. He was searching for the truth in other religions, but he accepted Jesus and ordained as one of the first pastors in the Korean church in 1907. Rev. Khil preached to over 380 thousand people and over 20,000 times. He was also one of the 33 leaders in March 1 Movement.

His preaching was for evangelization. He emphasized God's unfailing love based on John 3:16. His sermon was fully anointed by the Holy Spirit. The preaching of Rev. Khil did not stop in speaking repentance and born-again. For those who repented, he declared God's hope and comfort. He suggested a new image of human beings and focused on raising God's people. To him, repentance is to turn from their sin, born-again by the Holy Spirit, and try to be a new creature. So, he did not emphasize sin and repentance. The Great Revival in 1907 was ignited not by his preaching of repentance but by his confession of sin.

Rev. Khil had his own philosophy of preaching. His preaching was always based on the Word of God and God's redemption. He was pursuing for strong impression of the people. He also emphasized eschatology. He believed in "pre-millennial view". He laid a foundation of conservative theology of Korea. Rev. Khil also used a lot of illustrations. Most of them are from his own experiences, so they are more impressive than created or collective.

Rev. Khil's started morning prayer movement in Korea. Because of his religious discipline before his being born again, he was accustomed to pray in the early morning. His morning prayer was allowed in the session meeting, so many church members gathered prayed together. Finally, morning prayer became the driving force of the Great Revival in 1907, and most Korean churches have experienced church growth through morning prayer.

### 들어가는 말

지난 2007 년은 평양 대부흥 100 주년이 되는 해였다. 풍전등화와 같은 나라의 형편 속에 온 민족이 소망을 잃어갈 즈음, 하나님께서는 한민족을 사랑하셔서, 조선 땅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다. 바로 대부흥 운동의 주역이 되었던 분이 바로 영계(靈溪) 길선주 목사이다. 탁월한 설교자요, 열정적인 목회자였던 길선주 목사는 100 여년이 흐름 지금에도 한국 교회와 사역자들을 향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본 소고에서는 그의 생애를 간략하게 돌아보고, 설교자로서의 그의 면모와 그의 설교에 나타난 특징 및 신학적 이슈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생애와 배경

길선주 목사는 1896 년 3 월 15 일, 평안남도 안주에서 출생하였다. 한학에 조예가 깊었던 부모의 아래에서 자란 그는 청년시절, 인생의 궁극적인 의미를 깨닫기 위해 유교, 불교, 선도 등을 전전하는 종교적 방황을 경험한다. 그러나 참 진리, 영생의 진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가, 29 세가 되던 해에, Samuel A. Moffet 선교사에게 전도를 받은 친구 김종섭의 권유로 복음을 받아 들었다. 1897 년 8 월 15 일 Graham Lee 선교사에게서 세례를 받고, 1903 년 평양장로회 신학교에 입학하여, 1907 년 제 1 회 졸업생이 되었다. 1907 년 목사안수 후 1935 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길선주 목사는 전국을 순회하며 부흥회를 인도하였고, 통산 20,000 번의 설교로 380 만 명에게 설교 하였다. 1919 년 3.1 운동 당시 민족대표 33 인중의 한 사람으로 연루되어 옥고를 치르기도 했으며, 한국교회의 오순절이라 할 수 있는 1907 년 평양 대 부흥 운동의 주역이었다.

## 설교의 특징

### 1) 복음을 증거하는 설교

길선주 목사 자신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경험하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복음을 영접하였다. 그래서 그는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적인 설교를 그의 신조로 삼았다. 그는 철저히 성경에 근거한 해석을 시도하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흘러 나오는 구속의 역사와 진리를 증거하는데 삶을 바쳤다고 할 수 있다.<sup>1</sup> 길선주 목사는 특별히 요한복음 3:16 을 본문으로 해서 자주 설교 했는데, 그는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무한한 사랑을 강조하였다.

### 2) 소망과 안위를 주는 설교

<sup>1</sup> 길진경, 『영계 길선주』 (서울 종로서적, 1980), 189 쪽.

길선주 목사의 설교는 단순히 회개와 중생을 선포하는데 그치지 않았다. 그는 통회하고 자복하는 사람들의 심령을 향해, 새로운 소망과 안위를 주는 설교를 하였다. 길선주 목사는 성령의 구속 역사가 단순히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에 있지 않다고 보고, 새로운 인간상을 제시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키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바로 이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인간의 현실에 들어오셨고,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신다고 역설하였다. 따라서, 그에게 있어서 회개란 죄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성령의 도움으로 거듭나서 새사람이 되려는 노력이다.<sup>2</sup> 그래서 길선주 목사는 특별한 요청이 없는 한, 죄와 회개를 크게 강조하지는 않았다. 그가 주도했던 1907년 대부흥 운동은 1월 6일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의 회개운동으로부터 시작되었지만, 그것은 설교자 길선주 자신으로부터 시작된 회개의 역사 때문이지 정작 회개를 촉구한 설교 때문은 아니었다.

### 3) 설교관이 정립된 설교

설교가이면서 부흥사였던 길선주 목사의 설교 철학은 그가 1926년에 출판한 「강대보감」의 부록인 「강도법」에 잘 요약되어 있다.<sup>3</sup>

**講道(강도)의 意義(의의) : 講道(강도)라 하는 것은 境遇(경우)와 形便(형편)을 따라 하나님의 神靈(신성)한 理致(이치)를 가지고 聖經(성경) 말씀으로 基礎(기초)를 세우고 救贖(구속)하는 主義(주의)로 人心(인심)을 感動(감동)하도록 권면하는 有法的(유법적) 演說(연설)이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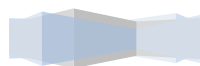
또 설교의 목적은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講道(강도)의 主義(주의) : 罪(죄)의 더러움과 魔鬼(마귀)의 權勢(권세) 가운데서 生活(생활)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光明(광명)한 光(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이라고 하였다.<sup>4</sup>**

<sup>2</sup> Ibid, 189.

<sup>3</sup> 길선주, 『강대보감』 (평양, 동명서관, 1926), 236.

<sup>4</sup> 길선주, 『강대보감』, 236.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길선주의 설교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하는 것과 구속을 선포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불러 일으켜야 한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 4) 종말을 강조하는 설교

길선주의 설교를 관통하는 사상은 말세론이었다. 그는 말년에 그리스도의 재림과 세계의 종말을 강조하고 사태의 긴박성을 알리는데 주력하였다.<sup>5</sup> 그는 또한 말세론에는 여러 가지가 있음을 지적하고, 그는 이른바 전천년설을 주장하고 있다. 그는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설을 주장하였다. 그러면서, 무천년설을 강하게 비판하였다.

길선주의 성경 무오설과 말세론은 한국에 있어서 보수주의 신학의 기초를 놓았다고 볼 수 있다. 길선주의 설교에서, 주의 재림은 영생세계의 전제이며 복음의 승리요, 교회의 결론이었다. 그래서 그는 성도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말세를 자각해야 한다고 외치고 요한계시록을 중요시하여 평생 동안 1 만번 이상을 읽었고 매일 새벽기도 후 20 분간 요한계시록을 암송했다고 한다.

### 길선주 목사의 설교에 대한 비평

#### 1) 장점

길선주 목사의 설교는 한국교회의 신앙과 신학의 기초를 놓았다고 할 수 있다. 그 일례로, 1935 년 장로회 총회에서, 길선주 목사는 “아빙돈 단권 성서주석”이 자유주의 신학자의 글이라 하여 정죄할 것을 주장하였다. 유동식은 이것을 두고, 길선주 목사가 근본주의 신학의 기초를 놓았다고 평하였다.<sup>6</sup> 그의 이 같은 행동은 성경의 절대 무오성을 주장하는 근본주의적 보수 신앙 형성의 기반을 놓았다.

또한 민족의 암울한 상황에 대해 고민하면서, 이것을 신앙의 힘으로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 설교하였다. 특별히 교회의 사명에 대해, 길선주 목사는 ‘상제회 교회’라는 설교를 통해 6 가지 교회의 사명을 언급하였다.<sup>7</sup> 그 중, 4 번째 항목은 “백성을 환란 중에서 구원”하는 것이다. 그는 교회가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나라를 위하고 백성을 위해 함을 강조하였다. 길선주 목사는 3.1 운동을 주도했던 민족 대표 33 인 중의 한 명으로 투옥되기까지 했었다. 물론 그의

<sup>5</sup> 유동식, 『한국신학의 광맥』 (서울, 전망사, 1982), 58.

<sup>6</sup> 유동식, 14-15.

<sup>7</sup> 길선주, 『강대보감』, 35. 6 가지는 1.복음을 전파함, 2. 하나님 권능을 출현, 3. 하나님 영광을 출현, 4. 백성을 환란 중에서 구원, 5. 마귀를 공멸, 6. 예수를 영접 이다.

말년에는 종말론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내세 지향적인 설교를 하기도 했지만, 그가 보여준 나라 사랑에 대한 열정은 결코 그냥 넘길 수 없는 부분이다.

## 2) 약점

길선주 목사는 Allegorical 해석을 통해 설교하였다. 길선주 목사의 설교는 제목 설교가 거의 대부분이다. 제목 설교는 1900 년을 전후해서 미국교회에서 유행했던 설교 형태로, 설교의 대지와 소지를 틀에 맞추려고 하다가 풍유적(Allegorical) 해석에 기울어진 경향이 강한 형태였다.<sup>8</sup> 더군다나, 성경의 본문 자체 보다는 그 뒤에 숨어있는 의미를 밝혀내는 풍유적 설교는 설교자의 영적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고, 청중들에게는 영적인 신비 체험이었기 때문에, 쉽게 받아들여질 수 밖에 없었다.

또한, 길선주 목사는 민족 대표 33 인 중 한 사람으로, 사회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진 의식 있는 설교자였지만, 출옥 후 지나친 타계주의적 신앙을 추구하게 되면서, 그의 설교 또한 현실도피적인 측면이 없지 않았다. 어두운 민족의 현실을 보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설교하는 것은, 어쩌면 설교자로서의 당연한 것이었는지 모른다. 그러나 인위적인 성경 해석과 사회를 등지는 그의 신학이 과연 옳았던 것인가에 대해서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

## 길선주의 부흥운동과 새벽기도<sup>9</sup>

한국교회의 새벽 기도는 길선주 목사에 의해 시작되었다. 그가 1906 년 장대현 교회에서 조사로 일하고 있을 때, 그는 박치록 장로와 함께 새벽기도를 시작하였으며, 한 달 동안 기도하면서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 그리하여 교회는 곧 매일 아침 규칙적으로 새벽기도회를 갖기로 결정하였다. 새벽 4 시에 종이 울렸고 신자들이 새벽 4 시 30 분에 장대현 교회에 새벽기도회로 모여 죄를 회개하며 부흥을 위해 기도하였다. 이것이 한국교회 새벽기도의 출발이었다.<sup>10</sup>

<sup>8</sup> 홍치모, “초기 미국 선교사들의 신앙과 신학”, 『신학지남』 (신학지남사, 1984. 봄.여름호), 159.

<sup>9</sup> 새벽 기도에 관한 영문 자료로는, 김명혁 목사의 저서, 「한국교회쟁점진단」(규장, 1998)에서 볼 수 있다. 저자가 1986 년 11 월 6-10 일 영국 캠브리지 틴데일 하우스에서 세계복음주의협의회 신학위원회 주최로 “성경과 세계 교회에 나타난 기도”란 주제로 모인 신학회에서 발표한 “한국교회의 기도의 습관”(D. A. Carson, ed. *Teach Us To Pray*, Paternoster, 1990 에 실림) 이란 논문과 1997 년 5 월 8-15 일 캐나다 밴쿠버 근교 아보츠포드에서 개최된 세계복음주의협의회 제 10 차 총회에서 주제 강연한 “한국교회의 기도와 교회 성장”(W. H. Fuller, ed. *The Tenth WEF General Assembly Compendium*, 1999 에 실림) 이란 논문에 있다.

<sup>10</sup> 김명혁, 『한국 교회 쟁점 진단』(규장, 1998), 41-42.

길선주 목사가 새벽 기도를 시작하게 된 배경에는 그의 독특한 종교적 여정이 있었다. 길선주는 기독교에 입문하기 전에 9 년 동안 선도 수련에 전념하여 겸한고행적인 기도생활에 전념하였다. 심산유곡을 찾아 다니면서 21 일, 49 일, 100 일에 걸쳐 불면불휴의 기도에 전념하였으며, 잠을 쫓기 위해 엄동설한 얼음물로 목욕하고, 밀심지에 불을 붙여 손가락 끝을 지저가며 기도에 전념하였다고 한다. 기도는 주로 참선과 유사한 묵상 기도였다. 심월관의 심공에 깊이 들어가 망야망형의 경지에 이르기도 하였다.<sup>11</sup> 이와 같이, 길선주 목사는 기독교로 개종하면서, 이미 새벽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길선주 목사는 새벽기도회를 통하여 항상 힘을 얻었고 기도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였다. 따라서 그는 목회자로서, 또한 사경회 인도자로서 기도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더 강조하고, 자신이 또 그렇게 실천하며 살아왔다. 길선주의 새벽기도회로 인해 개인적으로 기도했던 교인들이 당회의 허락을 통하여 합법적인 새벽기도회로 만들기 시작하였다. 또한 이러한 길선주 목사의 새벽기도회를 통하여 모든 한국교회에 새벽기도회를 시작하도록 만들었다. 이러한 길선주의 새벽기도회는 개인적인 신앙훈련의 한 방법으로 시작되어 교회적인 집회로 발전하였으며, 교회의 특수한 사정을 통하여 집단적으로 진행하였다. 여기에는 선교사나 외부와의 관계없이 전혀 독자적인 운동으로 시작되어 한국 교회에 새로운 예배의식으로 자리 잡았음을 알 수 있다.

길선주 목사로부터 시작된 새벽 기도운동과 부흥운동의 주목할 만한 특징은 요한계시록을 읽고 강해하면서 천국을 바라본 ‘소망 운동’이었다는 점이다. 길선주 목사의 기도에 나타난 또 하나의 두드러진 특징은 새벽기도 후에는 항상 약 20 분 동안 요한계시록을 암송했다는 사실이다. 그가 부흥 사경회를 인도할 때면 언제나 아침 시간에는 요한계시록을 강해하였는데, 이것이 복음전도 집회의 모델이 되었다.<sup>12</sup>

## 나가는 말

동아일보 사장이었던 송진우는 길선주 목사의 서거를 애도하면서, 다음과 같은 조서를 썼다.

<sup>11</sup> 허호익, “靈溪 吉善宙 牧師의 靈性神學,” 『韓國教會史論叢』, 136.

<sup>12</sup> 김명혁, 『한국 교회 쟁점 진단』, 42.



**故(고) 吉善宙(길선주) 牧師(목사)께서는 40 년간 敎職生活(교직생활) 중에 講道(강도)가 17,000 회에 달하며 청강자가 3 백 8 십만인이 있고 교회가 설립하기 60 처였으며 그 손으로 세례한 사람이 3 천명이었습니다. 이것은 다만 교회 내부의 일로만 볼 것이 아닙니다. 사회 민중 교도에 얼마나 큰 공헌을 하셨는가를 알 수 있는 일이니 우리는 사회인으로서 선생의 큰 공적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sup>13</sup>**

길선주 목사의 설교는 단순히 기독교 복음의 전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그는 나라 잃은 슬픔에 잠긴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구국의 메시지를 전해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그의 설교는 한국 교회의 보수적인 신앙의 기초를 놓았다. 또한 평양 대부흥 운동을 주도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데 있어서 큰 공헌을 하였다. 그의 설교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헌신되어 있었고, 사람들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고, 또 때로는 권면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키는데 쓰임 받았다. 물론 신학적 측면에서 그의 설교를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면이 없지 않지만, 그 당시의 시대적 한계를 고려한다면, 그것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다. 길선주 목사는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가 잘 조화된 설교가였다.

또한 길선주 목사로부터 시작된 새벽기도는 1907년 대부흥 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의 양적, 질적 성장에도 큰 기여를 하였다. 그가 새벽기도를 시작하게 된 배경에는 이교적인 종교 훈련의 폐단이 있는 것이 사실이나, 형식을 빌려왔을 뿐, 그 내용은 전혀 다른 것임을 생각할 때,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도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던 것처럼, 새벽기도의 성경적 근거는 얼마든지 있음을 감안할 때, 길선주 목사의 기여는 대단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길선주의 목사가 주축이 되어 시작되었던 1970년대의 대부흥 및 성령운동과 1970년대 이후의 기도 및 성령운동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바로 회개의 유무이다. 1907년 성령운동에는 회개의 열매가 있었는데, 1970년대의 성령운동은 신비주의와 기복주의 쪽으로 방향을 잡아 발전을 한 면이 많았다. 바로 이러한 자각과 함께, 길선주 목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고자 하였던 모습을 본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sup>13</sup> 송진우, “고 길선주 목사 조사”. 동아일보 1935.12.3.

**Primary Resources:**

- 길선주, 『종말론-영계 길선주 목사 저작집』 제 1 권. 서울: 기독교서회, 1968.  
\_\_\_\_\_, 『길선주 목사 예화모음』. 서울: 기독교문사, 1994  
\_\_\_\_\_, 『강대보감』. 평양: 동명서관, 1926.  
길진경, 『길선주 설교모음』. 서울: 기독교서회, 1968.

**Secondary Resources:**

- 강석현, “길선주 연구”, 신학 석사 논문, 고신 대학원, 2003 년.  
길진경, 『영계 길선주』. 서울: 종로서적, 1980.  
김명혁, 『한국 교회 쟁점 진단』. 서울: 규장, 1998.  
송진우, “고 길선주 목사 조사”. 동아일보 1935.12.3.  
유동식, 『한국신학의 광맥』. 서울: 전망사, 1982.  
이의석, “한국교회 부흥 운동사에 나타난 주역들의 설교 분석과 비평”, 신학 석사 논문,  
장로회 신학대학교, 2004 년.  
홍치모, “초기 미국 선교사들의 신앙과 신학”, 『신학지남』. 서울: 신학지남사, 1984 봄.